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이 판단의 회귀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 수 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필자가 동료와 함께 한 선행연구(1981)에서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판단의 회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주어진 신념들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에 비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내변산과 판단의 회귀효과사이의 관계가 신념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관계를 재분석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신념기대값이 판단의 회귀에 책임이 있는 요인임을 세가지 방향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동일한 신념을 태도대상을 달리하여 일정한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일반인과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인의 맥락에서 판단시켰을 때 후자에서 판단의 회귀가 증가하며, 둘째, 판단자의 태도가 비호의적일 때 자기의 태도와 일치하는 비호의 신념보다, 자기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호의적 신념에서 판단의 회귀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신념의 기대값에 따라 기대값이 낮은 신념일 수록 판단의 회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도내변산과 판단의 회귀효과 사이에서 얻어진 관계는 신념의 주관적 기대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타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에서 나타나는 대비효과와 회귀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대비효과는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의 거점(anchor)이 되어 그 거점과는 반대방향으로 타인의 태도를 전위시키는 현상이며, 회귀효과는 판단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타인의 태도를 판단척도의 중앙으

로 전위시키는 현상이다.

회귀효과는 사회적 판단에서 판단의 양극현상(polarization) 혹은 수축현상(contraction)으로 알려진 것으로써 판단척도의 중앙을 중심으로 호의적인 신념은 비호의적으로 과소평가되고, 비호의적인 신념은 호의적으로 과대평가됨으로써 판단이 전반적으로 중립화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대체로 비호의적 태도에서 중립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중립적 태도이며, 호의적 태도에서 가장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Sherif와 Hovland(1961)는 판단자가 자신이 찬성하는 신념에 대해서는 자기의 태도쪽으로 판단의 전위(displacement)를 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신념에 대해서는 자기의 태도와 반대쪽으로 전위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판단자의 태도가 호의 및 비호의의 양쪽에서 극단적일 수록 반대하는 신념의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태도의 극단성과 판단의 회귀(regression)의 크기가 역비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 호의적 태도에서는 판단의 양극화가 나타나 지지되거나 비호의적 태도에서는 중립화가 나타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Zavalloni와 Cook, 1965; Eiser, 1971).

판단의 회귀효과를 판단자의 지각에서의 변화로 이해한 Sherif와 Hovland의 입장과는 달리, 판단자가 판단척도(rating scale)에 부여하는 의미상의 차이로 판단의 회귀를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다시 이 문제를 재접근하였다. Upshaw(1969)는 판단의 회귀현상을 판단자의 참조척도(reference scale)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판단자의 참조척도는 판단에서 제시된 신념들의 호오값의 범위에 대한 판단자의 주관적 추정으로부터 형성된다. 이 주관적 추정 내지는 조망(perspective)을 통하여 판단척도가 재조정된다. 따라서 판단자의 주관적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수록 주어진 신념에 대한 판단은 양극화될 것이다. 만일 호의적 태도는 축소된 조망을 갖고 있으며, 비호의적 태도는 확대된 조망을 갖고 있다면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전자에서의 판단의 양극화와 후자에서의 판단의 중립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내지는 경험적 근거가 없다.

한편 판단척도의 양극단을 규정하는 명명어휘(labeling word)에 대

한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여 판단의 회귀가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Eiser(1971)는 흑인을 태도대상으로 한 판단 연구에서 호의적 태도는 비호의적 태도보다 “인종적 편견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호의적 태도는 자신이 찬성하고 있는 호의적 신념이나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비호의적 신념 모두에 대하여 더 양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호의적 태도에서 “비난”을 느끼지 않게 판단척도의 명명어휘가 규정될 수 있다면 비호의적 태도에서의 판단의 중립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Romer(1983)는 판단척도의 양극단을 찬성-반대로 하여 찬성하는 태도나 반대하는 태도가 모두 “비난”을 느끼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한 연구에서 그의 예언이 거부되고 있음을 밝혔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들은 모두 태도에 따른 판단의 회귀효과에서의 차이를 태도외적인 변인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호오차원에서의 위치로 표현된 전통적 태도개념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그와 같은 태도가 판단과정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호의적 태도와 비호의적 태도의 구조적 속성의 차이 그 자체를 의문시하지 않고 그것들이 판단과정에서 보여주는 기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의적 태도와 비호의적 태도가 판단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드러낸다는 사실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태도 자체의 구조적 속성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동료와 함께 한 연구(1981)에서 태도의 한 구조적 속성으로 신념들의 동질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태도내변산에 주목하여 판단의 회귀효과를 재접근하였다. 전통적 태도개념은 개인의 태도를 호오차원상에서의 하나의 위치로 환원시켜 기술하였다. 이렇게 환원된 개인의 태도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그가 갖고 있는 신념들의 호오값을 평균(Thurstone과 Chave, 1929) 혹은 누가(Fishbein과 Ajzen, 1975)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평균으로 환원된 태도만으로 대표시킬 때 신념수준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신념수준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다양성에서의 개인차도 무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 개인내에서 나타나는 신념들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태도내변산을 제시하여 판단의 회귀효과와 관련시켜 보았다. 그 결과 태도대상에 대하여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신념을 갖고 있는 태

태도변산이 큰 판단자일 수록 판단의 회귀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호의 및 비호의의 모든 태도에서 일관된 추세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판단의 회귀효과가 태도내변산의 크기와 관련되는 원인을 판단의 거점으로서의 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결국 평균으로서의 태도의 변산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범위내에서 주어진 태도는 변화될 수 있는 폭을 갖게 된다. 이것은 결국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판단의 거점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도판단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태도대상에 대한 다양한 신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태도의 변산범위가 넓은 판단자일 수록 판단거점으로서의 자신의 태도가 주어진 판단과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거점이 주어진 판단과제에 따라 바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판단거점과 주어진 신념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거점의 영향도 그와 비례하여 줄어들게 될 것이다.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적을 때 태도는 주어진 신념에 따라 변화될 수 없으며 경직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판단의 거점을 중심으로 그것보다 호의적인 신념은 비호의적인 것으로 과소평가되고, 그것보다 비호의적인 신념은 호의적인 것으로 과대평가됨으로써 판단의 회귀효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태도내변산은 측정조작으로만 이해할 때 한 개인이 주어진 태도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오값(favorableness)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신념들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expected values) 즉, 주어진 신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주관적 확률이 클수록 증가된다.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개개의 신념의 호오값과 그것에 대한 기대값을 곱하여 이를 신념수만큼 합산하여 얻어졌다. 따라서 제시된 신념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대값을 낮게 가질 때, 또는 특정신념에 대해서만 기대값을 높게 갖고 다른 신념들에 대해서는 낮게 가질 때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작을 수록 판단의 회귀효과가 증가한다는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판단에서 주어진 신념들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태도내변산이 크다는 것은 판단과제로써 주어진 호오값

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신념에 대하여 주관적 기대값을 전반적으로 높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판단의 회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결국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판단의 회귀효과와 관련된다는 결과는 판단과제으로써 주어졌던 개개의 신념에 대한 판단자의 주관적 기대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해석을 검토하려고 수행되었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학년 여대생 7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통제조건 35명과 실험조건 35명으로 나뉘어 각각 태도대상을 일반인과 일본인으로 달리 처치받았다. 피험자중 각 조건 2명씩 4명은 기재불충실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도구 및 절차 실험에서 선정한 태도대상은 “일반인”과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태도주제는 사회적 판단실험의 대표적 주제로 알려진 “흑인”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주제를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실험피험자와 유사한 집단에서 일본인의 “성격특성”에 대하여 통제연상을 받았다. 이 자료로부터 일본인의 성격특성 24가지를 각 특성의 호오값과 연상강도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뽑았다. 여기서 연상강도는 전체 연상빈도에서 주어진 특성의 출현빈도로 산출하였는데 선발된 성격 특성에서 높은 특성은 그 비율이 .25이상, 낮은 특성은 .05이하, 중간 특성은 이 사이의 비율을 갖는 특성이었다. 이들 특성은 호의-높은 특성(애국적이다, 부지런하다, 상냥하다, 단결력이 있다), 호의-중간 특성(검소하다, 야망적이다, 깨끗하다, 끈질기다), 호의-낮은 특성(성실하다, 용감하다, 적극적이다, 조심스럽다), 비호의-높은 특성(물질주의적이다, 간사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신의가 없다), 비호의-중간 특성(비인도적이다, 지배적이다, 침략적이다, 잔인하다), 비호의-낮은 특성(불순하다, 독단적이다, 인색하다, 사치스럽다)으로 나뉘었다.

본 실험을 위하여 위의 성격특성들을 가지고 두 가지 평정척도를 만들었다. 한 가지는 일반 사람들의 배경(일반인)에서 제시된 성격특

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한 척도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사람의 배경(일본인)에서 제시된 성격특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한 척도였다. 일반인 척도의 지시는 “아래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상장면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를 얼마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떠오르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였으며, 일본인 척도의 지시는 “아래에서는 일본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상장면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일본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를 얼마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떠오르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였다. 평정척도에 기술된 성격특성은 위에서 제시한 24개의 특성과 평정척도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극히 호의적인 특성과 극히 비호의적 특성 각각 2가지씩을 선정하여 모두 28가지로 하였다. 성격특성의 제시순서는 처음에 4개의 척도범위설정 특성이 나오고 나머지 특성들은 특성의 호오값과 연상강도에 따라 무선적으로 배열하였다. 이 배열순서는 일반인 척도와 일본인 척도에서 동일하게 하였다. 성격특성의 평정은 극히 싫다(-5)부터 극히 좋다(+5)까지의 11점 등현간격척도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의 진행은 강의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일반인 척도와 일본인 척도가 피험자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들 척도를 무선적으로 섞어서 배부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두 가지 척도 중 한 가지를 임의로 배정받았다. 실시시간은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후, 일본인을 평정대상으로 한 피험자들에게는 따로 일본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11점평정 척도에서 평정받았다.

결 과

표 1은 24개의 성격특성으로 이루어진 신념들에 대한 피험자집단의 반응을 신념의 호의값과 연상강도별로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호의 신념 12개와 비호의신념 12개가 연상강도의 세 수준으로 4개씩 나뉜 것을 평균한 것이다. 표에 나와있는 점수는 원래의 -5에서 +5까지의 척도상의 점수를 편의상 0에서 10까지로 환척하여 제시한 것

이다. 이 표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동일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태도대상에 따라 판단의 회귀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전반적으로 판단의 회귀가 나타나, 호의신념은 덜 호의적으로 과소평가하고 비호의신념은 더 호의적으로 과대

〈표 1〉 태도대상에 따른 신념(성격특성)의 평정평균

태도대상	호 의 신 념			비 호 의 신 념		
	상	중	하	상	중	하
일반인(N=33)	8.05*	7.87	8.05	1.75	2.08	2.30
일본인(N=33)	7.69	6.46	6.75	1.91	1.83	2.89
평균차(일반인-일본인)	.36	1.41	1.30	-1.16	.25	-1.59

*점수가 높을수록 호의적이다.

〈표 2〉 태도대상에 따른 신념평정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자 유 도	평 균 자 승	F
집 단 간	65		
A(태도대상)	1	288.49	2.98
오차a	64	96.72	
집 단 내	330		
B(신념호오값)	1	45397.98	697.10**
A×B	1	567.36	8.71*
오차b	64	65.12	
C(신념기대값)	2	104.61	10.70**
A×C	2	71.29	7.29*
오차c	128	9.78	
B×C	2	169.57	11.77**
A×B×C	2	102.46	10.74**
오차bc	128	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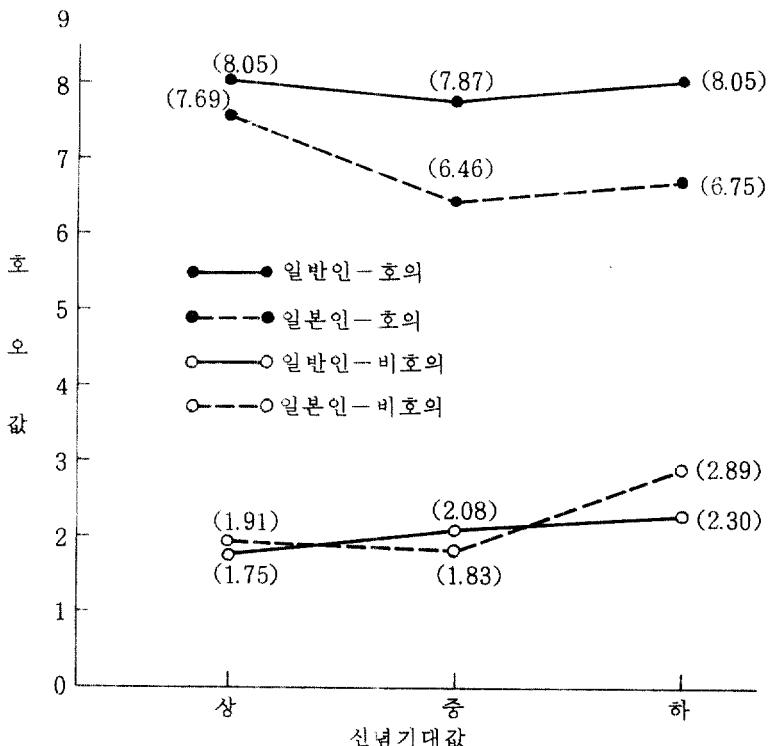
*p<.01 **p<.001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 = 8.71, df = 1/64, p < .01). 이 경향은 판단자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신념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판단하는 데 비하여, 일본인에 대해서는 판단자들이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의 거점이 되어 판단에서 작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이 자료에서 호의신념과 비호의신념을 따로 떼어 분석해 본 결과 호의신념에서는 일본인 대상에서의 판단의 중립화가 의미있게 나오고 있는 데 ($F=10.29$, $df=1/128$, $p<.001$), 비호의신념에서는 이 추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 ($F=.31$, $df=1/128$). 이 결과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이 일본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호의적 신념은 기대값을 높게 가질 수 있으나 호의적 신념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게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신념의 기대값의 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또한 신념기대값과 태도대상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있게 나와 지지받았다 ($F=11.77$, $df=2/128$, $p<.001$). 주어진 신념의 기대값이 낮을 때, 높을 때에 비하여 판단의 회귀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일반인과 일본인의 평균차가 신념기대값이 높을 (상) 때는 호의와 비호의 신념을 절대값으로 합쳐도 0.52인데 비하여 낮을 (하) 때는 1.89나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태도대상에 따라서 다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한 판단에서는 신념기대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판단의 회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에서는 이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F=10.74$, $df=2/128$, $p<.001$). 그런데 앞의 방법론의 자료선정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념기대값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표 1에서 신념기대값이 일반인에 대해서 상, 중, 하로 분류된 것은 일본인과의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에서는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념기대값에 따른 회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신념의 기대값을 문제삼지 않은 일반인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를 문제삼은 일본인에서만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신념기대값이 판단의 회귀에 책임이 있는 변인임을 거듭 입증시켜 주는 결과이다.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의 회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인 대상을 평정한 피험자의 자료만을 가지고 표 3을 정리하



〈그림 1〉 신념기대값에 따른 판단의 회귀효과

였다. 이 표에서 판단자의 태도의 분류는 세 집단으로 하였는데, 일본인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비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극히 비호의 집단(-5에서 -4점 사이), 대체로 비호의 집단(-3에서 -2점 사이), 중립적 태도집단(-1점에서 +1점 사이)로 구분하였다. 일본인 대상을 평정한 전체 피험자중에서 자신의 태도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2점 이상의 호의적 태도를 가진 피험자를 제외시켜 26명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 3에서 판단자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비호의적일 수록 판단의 회귀가 일관성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의신념은 덜 호의적으로 과소평가되고 비호의신념은 덜 비호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추세가 극히 비호의, 대체로 비호의 그리고 중립적 태도집단의 순으

〈표 3〉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신념(성격특성)의 평정평균

태도	호의신념			비호의신념		
	상	중	하	상	중	하
극히 비호의집단(N=8)	6.44*	5.28	6.09	2.44	1.88	3.06
대체로 비호의집단(N=9)	7.67	6.14	6.92	1.42	1.61	2.86
중립적 태도 집단(N=9)	8.36	7.53	6.95	1.64	1.58	2.45
전체(N=26)	7.53	6.36	6.67	1.81	1.68	2.78

* 점수가 높을수록 호의적이다.

〈표 4〉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신념평정의 변량분석

변산원	자유도	평균자승	F
집단간	25		
A(판단자태도)	2	62.82	.40
오차 a	23	155.96	
집단내	130		
B(신념호오값)	1	14155.10	273.45***
A×B	2	261.16	5.05*
오차 b	23	51.77	
C(신념기대값)	2	128.13	7.02**
A×C	4	19.12	1.04
오차 c	46	18.25	
B×C	2	174.81	13.65***
A×B×C	4	14.04	1.10
오차 bc	46	1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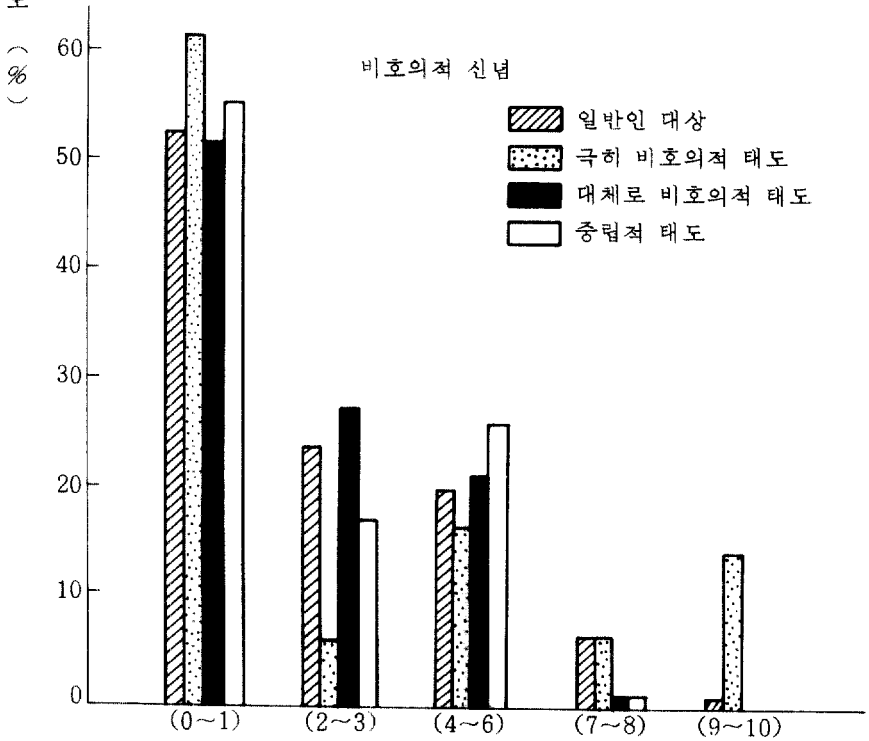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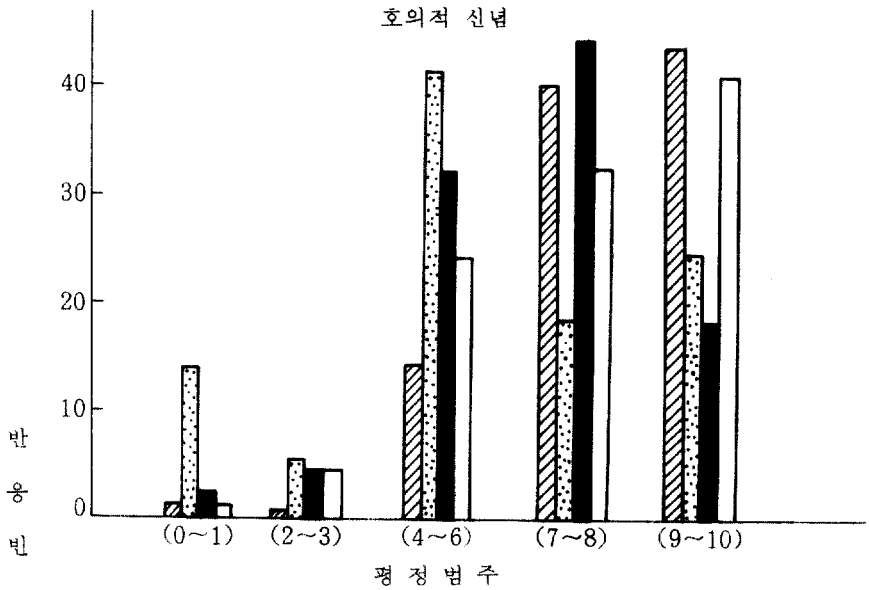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로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도 표 4에서 판단자태도와 신념호오값간의 상호작용으로 유의하게 나왔다($F = 5.05$, $df = 2/23$, $p < .05$). 이 결과를 호의신념과 비호의신념에서 각각 따로 떼어 분석한 결과 호의신념에서는 판단자의 태도가 극단적일 수록 판단의 회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 = 5.50$, $df = 2/46$, $p < .05$), 비호의신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F = .74$, $df = 2/46$). 여기서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일본인에 대하여 비호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비호의신념에서 판단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음

며, 자신들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호의신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의 신념기대값에 따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표 3에서도 앞의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념기대값의 차이에 따른 판단의 회귀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3.65$, $df=2/46$, $p < .001$).

Romer (1983)에 의하면 판단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의 회귀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은 실험에 참가한 일부 판단자가 실험상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판단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자는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주어진 신념의 호오값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어진 신념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판단자의 태도가 비호의적일 때 호의신념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비호의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정하고, 비호의신념은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호의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정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판단의 중립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호의적 태도를 가진 판단자에게서는 그가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념의 호오값과 그것에 대한 찬반반응의 방향이 일치함으로써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양극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판단의 회귀효과에서의 차이가 그와 같은 실험지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와 같이 평정척도의 각 범주별로 피험자의 반응빈도를 산출하였다. 호의신념과 비호의신념에 대한 반응은 따로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각 범주별 반응빈도를 전체반응빈도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하였다. 판단자의 태도는 앞에서와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자의 반응도 첨가하였다.

그림 2에서 호의신념과 비호의신념에 대한 판단자들의 반응분포는 Romer (1983)의 U곡선의 이원분포의 결과와는 달리 J곡선에 가까운 이원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의적 신념에서는 평정척도의 호의적 범주(5에서 10까지)에 반응빈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며, 비호의적 신념에서는 비호의 범주(0에서 5까지)에서 반응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의신념을 비호의 범주에다 평정하거나, 비호의신념을 호의 범주에다 평정하는 것과 같은 판단의 전도 사례는



<그림 2> 태도집단에 따른 평정척도범주별 반응빈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의 전도사례에서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차이도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인과 일본인 대상 사이에서 판단의 전도사례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의 결과에서 이 두 대상 사이에서 나타난 판단의 회귀량에서의 차이를 실험지시에 대한 판단자의 이해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 같다.

논 의

앞에서 제시된 결과는 주어진 신념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이 판단의 회귀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을 지지해 준다. 신념의 기대값은 판단의 회귀와 부적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신념기대값과 판단의 회귀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결과는 세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먼저 동일한 신념을 다른 맥락 즉, 일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시킨 결과에서 얻어졌다. 주어진 신념이 일본인을 기술할 때는 일반인을 기술할 때에 비하여 판단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판단자들이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으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일반인은 일정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신념(성격특성)으로 기술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값의 확률이 1인데 비하여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와 일치되는 신념에 대해서는 기대값이 1이 되겠으나 자신의 태도로부터 거리가 먼 신념일 수록 그 기대값은 0에 가까워 질 것이다. 어떤 신념이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야기될 확률이 1 이라면 그 대상은 그 신념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념의 의미가 곧 대상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상과 신념사이에 어떤 종류의 간섭도 기대할 수 없다. 왜 신념의 기대값이 클 때 판단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은 판단의 거점인 태도가 곧 그 신념으로 환원될 수 있어 서로간의 간섭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판단의 회귀효과가 호의적 신념에서는 나타나는 데 비호의적 신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 이 결과는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 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때 수긍이 간다. 비호의적 태도의 판단자가 자기의 태도와 일치되는 비호의신념을 평가하는 경우, 태도와 불일치하는 호의신념보다는 주관적 기대값을 높게 갖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논리대로 하면 호의신념에서 판단의 회귀가 크게 나오는 것은 예상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념의 기대값과 판단의 회귀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신념의 연상강도를 독립변인으로 조작한 결과에서 나타난다. 주어진 신념(성격특성)이 태도대상(일본인)과의 관계에서 연상강도가 클수록 판단의 회귀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신념의 연상강도를 조작하지 않은 일반인의 맥락에서 평정시켰을 때 판단의 회귀효과의 차이가 얻어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판단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일관된 추세를 보인다. 여기서 신념의 연상강도는 태도대상에 대한 연상에서 주어진 신념의 출현빈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신념에 대한 기대값의 간접적인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신념의 기대값은 대상과 신념의 관계에 대한 개인차원에서의 주관적 기대인 반면에 연상강도는 규범차원에서의 기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서 출현빈도가 높은 신념은 개인적으로도 그 신념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결과들은 모두 신념의 기대값이 판단의 회귀에 책임이 있는 요인임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신념의 기대값이 판단의 회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음할 차례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종래의 견지되어 왔던 판단의 거점(anchor)에 대한 견해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판단에서 지배적 견해는 판단자의 태도가 판단의 거점이라는 생각이다. Sherif와 Hovland (1961)는 판단의 회귀를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어진 신념을 동화 내지는 대비시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Upshaw (1969)는 판단척도의 조망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 거점을 생각했으며, Hiser (1971)는 이 거점이 말초차원(찬반차원)이 되어 초점차원(호오차원)에 작용함으로써 판단의 회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판단의 거점으로서의 판단자의 태도를 호오차원상에서 고정된 위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했

다. 사실상 전통적 태도개념에서 개인의 태도는 호오차원에서의 고정된 하나의 위치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개인의 태도는 사실상 태도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념들의 호오값에 기대값을 가중하여 이를 평균 내지는 누가하여 얻어진 것이다. 환언하면 태도는 신념차원에서 나타나는 호오값을 통합하여 가지고 대표시킨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신념은 태도로 통합되기 이전에 태도와 독립하여 그 자체의 호오값과 기대값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신념에 대한 호오값과 기대값에 대한 개인의 이와 같은 주관적 입장이 그 신념을 판단할 때 작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판단장면에서 신념호오값과 신념기대값은 서로 독립된 기반을 갖지 못한다. 신념기대값은 신념호오값에 영향을 주며, 또한 이와 반대로도 작용한다. 신념의 기대값이 높을 때 태도와 신념이 일치하기 때문에 환언하면, 신념의 호오값이 곧 태도이기 때문에 신념의 호오값에 대한 판단에서 태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신념의 기대값이 낮을 때 신념의 호오값과 태도가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태도와 신념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 신념의 판단에서 태도가 작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 간섭은 신념호오값과 태도호오값 사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념의 기대값의 확률이 0에 가까울 때 그 신념으로 태도대상을 기술한 태도진술문을 판단자들이 접한다면 일차적으로 태도대상과 그와같은 신념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할 것이다. 그리하여 판단자들은 태도대상과 그 신념을 “의미있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려는 노력 즉, 그와같은 태도진술문을 찬성한다던지 혹은 반대한다던지하는 “찬반차원에 대한 관심”의 표현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와같은 신념으로 구성된 태도진술문을 피력한 사람의 태도를 판단해 보라는 소위 “호오차원에 대한 관심”의 환기는 먼저 그 진술문의 진위를 가리고 난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호오차원에서의 판단을 굳이 강요한다면 아직 태도대상과 그 주어진 신념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태도를 무시하고 신념의 호오값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던지 아니면 신념의 호오값을 무시하고 대상에 대한 태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장면에서 판단자가 대상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여 주어진 태도진술문에 반영된 타인의 태도를 전적으로 자신의 태도로 환원시켜 판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판단에서 난문제로 남아있는 판단자의 태도가 비호의적일수록 판단의 회귀도 이와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태도가 부적으로 편포되었기 때문에 중립적 태도와 비호의적 태도의 비교만이 가능했으나 호의적 태도도 포함한 다른 연구에서 보면 비호의, 중립, 호의의 태도 순으로 판단의 회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론에서 인용한 것처럼 Sherif와 Hovland(1961)는 동화대비이론으로, Upshaw(1969)는 가변조망이론으로, Eiser(1971)는 강조효과이론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모두 이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채 이 난문제를 뒷 사람에게 남겨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호의적 태도의 판단의 회귀효과를 이 판단자들이 다른 태도의 판단자보다 판단과제로써 주어진 신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관적 기대값을 낮게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비호의적 태도는 주어진 신념중에서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극히 소수의 신념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값을 부여하고 판단에 임하나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나머지 신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기대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태도대상으로 선정한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그 본질이 배타주의적 태도로서 민족적 고정관념 내지는 인종적 편견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비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판단자는 일본인에 대한 그의 인지구조가 단순하고 편협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인종적 배타주의를 가진 사람에게서 단순하고 편협된 인지구조가 나타난다는 경험적 근거는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된다(Adorno, Frankel - Brunswick, Levinson 및 Sanford, 1950).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종적 편견 내지는 배타주의를 함축하지 않는 태도대상을 선정한다면 비호의적 태도에서의 판단의 회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이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우정을 태도대상으로 연구한 Manis(1961)의 결과는 중립적 태도에서 회귀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판단자의 인지복잡성을 연구한 White와 Harvey(1965)의 연구에서는 판단자의 태도에 따른 회귀효과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필자가 동료와 함께 한 연구(1981)에서도 “대학생이 재학중 군에 입대하는 것”과 “가정주부가 직장을 갖는 것”을 태도대상으로 하였을 때 태도에 따른 판단의 회귀효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산발적이며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Romer(1983)는 최근에 비호의적 태도에서 판단의 회귀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을 판단자들이 실험상의 지시를 “타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보았다. 사실 일부 피험자 중에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호오차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찬반차원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지시를 잘못 받아들인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피험자들이 실험상의 지시를 완전히 이해한 상황에서도 비호의적 태도를 가진 판단자 사이에서 판단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판단의 회귀현상을 실험상의 지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만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왜 똑같은 지시를 받고도 피험자 사이에서 “이해의 차이”가 빚어지는가에 대한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지시를 잘못 받아들인다는 그것 자체가 판단의 회귀효과를 야기하는 관전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념에 대한 주관적 기대값은 자신의 태도와 호오값이 다른 신념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주어진 신념에 대하여 찬성 내지는 반대한다는 생각(찬반차원에 대한 관심)부터 하게 되는지 아니면 주어진 신념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가 하는 생각(호오차원에 대한 관심)부터 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ajfel(1957)은 그의 강조효과이론에서 판단의 회귀현상이 말초차원(찬반차원)이 초점차원(호오차원)에 오염을 일으키어 야기되는 현상으로 이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 · 장성수. 태도, 태도내 변산 및 판단의 수축효과, *행동과학연구*, 1981. 6, 73-86.
- Adorno, T. W., Frenkel-Bruswik, E., Levinson, D. F., & Sanford, R. W.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Harper Row, New York, 1950.
- Eiser, J. R. Comments on Ward's attitude and involvement in the absolute judgement of attitude stat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17, 81-83.
-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 Manis, M. The interpretation of opinion statements as a function of message ambiguity and recipient attitud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63, 78-81.
- Romer, D. Effects of own attitude on polarization of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1983, 44, 273-284.
- Sherif, M., & Hovland, C. *Social Judg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1.
- Tajfel, H. Value and perceptual judgment of magnitude. *Psychological Review*, 1957, 64, 192-204.
- Thurstone, L. L., & Chave, E. J. *The measurement of attitude*.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29.
- White, B. J., & Harvey, O. J. Effects of personality and own stand on judgment and production of statements about a central issu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5, 1, 334-347.
- Zavalloni, M., & Cook, S. W. Influence of judges attitude on rating of favorableness of statements about a social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1, 43-54.

ABSTRACTS

Effects of Subjective Expected Values on Regression of Judgment

Lee, Soo-Woo

Department of Education, Han Yang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more intra-attitude variation of judges, the less regressed its judgments of other's belief statements. The intra-attitude variation was determined by individual's expected values to the beliefs obtained from attitude object. Then this study assumed that the more judge's expected value of other's belief statement, the less regressed the judgment of that statement.

To test this assumption, subjects were asked to rate other's belief statements consisted of personality traits of attitude object "Japanese". Twenty-four belief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evels of its expected values to the attitude object. Sixty-six subjects were equally divided into two conditions—Japanese rating condition and general others rating condition. The former was required to judge each of stimulus person characterized by belief statements under the context of Japanese, and the latter under the context of general 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Japanese rating condition, the regression of judgments was appeared with judge's attitude as an anchor, but not under the general others rating condition. Second, the more increased the inconsistency between other's belief statement and judge's attitude. the more regressed its judgment of that belief statement. Third, the more associative strength of belief statement with attitude object, the less regressed its judgment of that belief stateme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s supporting the assumption of this study.